

여수시-여수세무서, 고향사랑기부로 지역 상생 실천

직원 21명 자발적 기부 참여... 기관 간 연대 의미 더해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22일 여수세무서 직원 21명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가운데, 여수세무서 3층 여울쉼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13일 여수시와 여수세무서가 체결한 '국세·지방세·세정지원 및 행정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김훈 여수세무서장은 "바쁜 업무 중에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여수세무서는 여수시와의 긴밀한 행정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세정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부에 참여해 주신 여수세무서 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뜻깊게 활용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계기로 관내 공공기관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시는 5월 한 달간 일부 답례품 증량과 함께 기부 금액 10만 원당 네이버페이 1만 원을 추가 증정하는 가정의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2,000만 원 이내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국 농협 창구와 '고향사랑e음' 누리집, 민간플랫폼 '위기브', 은행 앱 등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통해 제도의 의미를 확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세무 행정 기관이 지역 기부 문화 확산에 함께

참여하면서 민관 협력의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여수시는 이번 참여를 계기로 제도 인지도 제고와 참여 기반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공공기관과 연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부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된다.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환경 개선 등 체감도 높은 사업 발굴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답례품 품질 관리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도 다각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역 상생을 위한 기부 문화 정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이유빈 기자



여수세무서 여울쉼터에서 직원 21명이 고향사랑기부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여수 시청 제공

순천시, 치유농업 기반 농촌돌봄서비스 확대 추진

순천시가 농업과 돌봄을 연계한 주민 체감형 농촌돌봄서비스 확대에 나서며 농촌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농촌돌봄농장 3개소와 농촌주민 생활돌봄공동체 1개소가 선정돼 다양한 주민 참여형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총 2억3천4백만 원이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농촌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에는 ▲모이라사회적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에스펠리어 ▲덕동원영농조합법인 ▲전남아우름사회적협동조합 등 4개 기관이 참여해 어르신과 장애인, 청소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유빈 기자

광양시 드림스타트, 로봇랜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광양시 드림스타트는 최근 초등학교 25명을 대상으로 경남 마산 로봇랜드에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동들에게 로봇 기술과 놀이시설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아동들은 로봇 체험관에서 자동차 부품을 정밀하게 조립하는 산업용 로봇,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로봇,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드론쇼 등을 관람하며 로봇 기술의 활용 분야를 살펴보았다.

이어 야외 놀이공원에서는 ▲스카이라워 ▲회전그네 ▲어린이관람차 ▲나는로봇 ▲캐슈열차 ▲어린이타워 ▲해적선 ▲로봇친구들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체험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아동들에게 다양

한 로봇 기술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새로운 분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드림스타트는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의 동등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임산부부터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정서·행동 ▲인지·언어 ▲부모·가족 등 4개 분야의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문화 체험은 아동들의 창의력 향상과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는 데 중점을 뒀다.

다양한 로봇 기술 체험과 놀이 활동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으로, 현장 대응 능력 향상 도모

전남 곡성군은 최근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시청각실에서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삼강원, 인정원), 노인복지시설 등 민간 시설 사회복지사 80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은주) 주관으로 실시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급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종사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칠곡군의회 정책지원관 김광석 강사가 "사회복지 AI와 사회복지, 그 사이에서 길을 묻다"와 두산에너지리티(주) 수석 김정수 강사 "AI시대·더 잘 하려고 하는 말보다 더 다치려고 배우는 사회복지사의 스피치"라는 주제로 참석한 사회

복지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박은주 전라남도 사회복지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맞아, 앞으로도 책임감을 지니고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과 노력으로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교육이 실무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AI 시대 변화에 대응한 사회복지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최신 기술과 소통 방식 변화에 맞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교육 효과를 높였다.

/이일규 기자

구례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물 정비 박차

전남 구례군은 주요 하천과 계곡에서 불법 점용, 평상과 가설건축물 설치, 자릿세 수취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7월 휴가철 전까지 집중적으로 불법시설물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TF팀 구성을 시작으로 관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구거, 산간계곡 등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총 454건, 1,480개소의 불법 시설물을 발견하여 관련 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이번 정비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2월 대통령 지시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정비 대상에는 하천과 계곡 내 설치된 평상, 가설건축물, 불법시설, 경작 행위 등이다.

정부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

지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자진 신고 및 정비 제도 기간을 운영하여 강제 철거보다는 가급적 자진철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침이다.

구례군의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는 행위자들과 지속적인 만남과 설득으로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져 26%의 자진 철거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을 상회 하는 높은 추진율에 속한다고 담당부서는 밝혔다.

또한 군은 자진 철거에 협조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물 정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제방 유실 구간 정비와 추락 방지 난간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심선성 기자

NAJU 우리농가를 살리는 착한 소비!

오색마을 [나주시 쇼핑몰]